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예수님은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하고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하고 대답합니다. 즉 스승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에 반박하다가 스승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꾸중을 듣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태 16,21-23 참조). 그 후 베드로는 스승의 이 질문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이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고백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느 신자분이 피정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묵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 저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 신자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붙였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애칭을 부르시며 ‘너는 나의 누구(애칭)이지!’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신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깊이 아시고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참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참되고 깊은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주고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있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묵상해 나가며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며 그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박혁호 미카엘 신부 | 교정사목 담당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22,19-23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 독 서	로마 11,33-36
복 음	마태 16,13-20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침 햇살이 번지고,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들판에 곡식이 익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삶의 소중함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일부이면서 우리를 둘러싼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세상과 우리 주위의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늘 기억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2023년 창조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모스 예언서(5,24)에서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정의는 ‘윤리적인 덕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가톨릭 교회 교리서*, 1807항 참조)입니다. 현재 기후 위기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인류 공동체를 넘어,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계 기상 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올해 7월 첫 주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WMO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기상이 보건, 생태계, 경제, 농업, 에너지, 물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빨리 대폭 줄여야 하는 시급성을 보여 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여름 폭우, 홍수, 산사태, 침수로 많은 희생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을 둘러보아도 기후 위기에 지구촌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이 공동의 집을 부당하게 다룬 결과는 (*찬미받으소서*, 53항 참조) 우리에게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해안 침식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식량 위기, 기후 난민의 증가 등 생존에 직결된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생태적 빛’은 결국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 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올해 7월 첫 주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WMO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기상이 보건, 생태계, 경제, 농업, 에너지, 물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빨리 대폭 줄여야 하는 시급성을 보여 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여름 폭우, 홍수, 산사태, 침수로 많은 희생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을 둘러보아도 기후 위기에 지구촌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이 공동의 집을 부당하게 다룬 결과는 (*찬미받으소서*, 53항 참조) 우리에게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해안 침식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식량 위기, 기후 난민의 증가 등 생존에 직결된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생태적 빛’은 결국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우리 공동의 집을 치유하고 그 집이 다시 한 번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생활 양식의 변화, 공공 정책의 변화를 결의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생태적 회개’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생태적 회개’는 피조물을 더 이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창조주께 받은 거룩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며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과 관계, 현재와 미래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환경을 대하는 통합적 접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2023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교황 담화 참조).

우리에게 시급한 앞서 말한 세 가지 변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진 생태적 빛을 깊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특정한 덕의 실천이 약화될 때 환경의 불균형을 비롯한 많은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건전한 겸손’과 ‘행복한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24항 참조).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무도 내적 평화 없이 절제의 길을 걸으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내적 평화는 경탄의 능력과 함께 우리 삶의 깊이를 찾아 주며, 이는 조화로운 생활 양식에 반영됩니다(*찬미받으소서*, 225항 참조). ‘생태적 회개’에 대한 초대에는 나의 마음과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며, 내적인 덕을 실천하게 하고, 나를 둘러싼 피조물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에 대한 경건함은, 피조물을 가족이나 친척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그의 경탄의 능력과 함께 조화로운 생활 양식의 모범입니다. 이 태도는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는 물이 수많은 개울과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만들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각자의 ‘생태적 회개’가 여러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만들어 ‘생태적 회개의 바다’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 28차 국제 연합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정상 회담에 모일 세계 지도자들이 이 급변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파리 기후 협약(COP21)을 거스르는 화석 연료 기반 시설의 계속적 추구하고 확대를 중단하고 이를 억제하여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탈석탄법 제정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고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4대강의 재자연화와 설악산 국립 공원을 포함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정의롭지 못한 부담과 생태적 빛을 남기게 됩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속 가능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기도하는 이 창조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심 어린 생태적 회개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 우리의 미약한 보속이 공동의 집인 지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공동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강물처럼 이 세상에 끊임없이 흐르게 합시다.

2023년 9월 1일 창조 시기를 시작하며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난여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영·육간 필요한 치유의 은총 안에서 빨리 수해복구가 되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성령께 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입추도 지났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아픔을 겪으며 인생무상을 배운다. 우리는 하느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거저 받고 하느님 자녀로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선택되었다거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며 우리가 선행하거나 인품을 갖춰서도 아닐 것이다. 그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형제자매로서 자식으로, 벗으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살게 하셨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 삶의 여정은 나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친구도 자식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진다. 생기 있던 한 인간이 너무도 힘없이 한 줌의 흙이 되어 떠나고 나를 스쳐갈 모두는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나와 함께했던 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이 같은 죽음을 맞닥뜨리고 마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는 죽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살아있을 땐 죽음이 없었고, 죽었을 땐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일상 중에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상실의 고통스러움을 겪지만 죽음의 고통을 겪고 죽어간 당사자인 본인은 종말을 맞으며, 죽음 그 자체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내가 사랑하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으며 그 크신 사랑과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기억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주고 성큼 다가온다. 우리는 삶의 일부인 죽음을 자주 언급하면서도 내가 겪는 소박한 일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나의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지 살펴볼 것이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생명의 기적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갖는 하늘나라의 열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에 따라 살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합당히 쓰는 지혜라 여긴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총이며 복이다. 땅은 하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열쇠는 땅에 있다. 일상의 모든 상황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받아들이면(풀면)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는다.

뿌리 깊은 복음의 보금자리 거제성당

이준호 라파엘

거제성당은 좁은 길을 통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십자가상과 예수성심상이 웅장하게 다가온다. 경배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넓은 마당에 회색빛이 도는 화강석의 성전이 예스럽다. 경남의 근대건축 문화유산 중 하나다. 1957년 당시 서울대 건축공학부에 설계를 의뢰하여 지었다는데, 모래와 소나무 등으로 기초를 다져 튼튼하다고 한다. 인근의 초등학교와 교회도 같은 공법으로 지었다. 성전 안팎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오후 햇살로 성전 안의 스테인드글라스가 화사했다.

강정 만들기 사랑 가득 넘치는 본당

사목회장인 백창임 니까시오의 말을 들어보았다. 그래도 성전은 보수가 필요하기에, 겨울철 강정 만들기를 하며 수익금을 모으고 있단다. 10년 넘게 이어온 강정 만들기 수익금으로 2019년에는 성모성심관도 지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힘을 다하는 일로는 거제성당의 으뜸 풍경이다. 여담으로 어떤 형제는 강정을 만들다가 도중에 병원을 다녀올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고, 늦게 일을 마친 직장인도 일손을 도왔다고 한다. 훈훈한 온정의 산실이 아닐 수 없다. 성모성심관은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앞에는 성모상과 레지오 도입 50주년 기념석이 있다. 비문이 눈길을 끈다.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라는 감동적인 글귀이다. 거제본당의 주보성인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이다.



축복받은 거제의 보금자리 본당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사목회장을 역임한 변득정 아우구스티노도 자리에 함께했다. 그는 거제성당 역사의 산증인이다. 128년 전 명진공소로부터 출발한 거제성당은 1935년에 명진본당으로 승격하였고, 1949년에는 거제성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옛날에 본당 자리는 기와를 굽던 곳이었었는데, 거제 계룡산의 수려한 봉우리가 내려다보는 곳으로 터가 좋았다고 했다. 복음으로 축복받은 거제의 보금자리라 할 만하다. 1958년에 현재 성전의 기공식을 하였다. 본당으로 승격할 즈음의 11개 공소는 현재 4개 공소와 12개의 구역으로 정비되었다. 당시엔 주임 신부가 본당에 배정된 독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공소를 돌던 시절이었다. 현재도 주임 신부가 거제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5개 면에 봉성체를 나가면 5시간은 족히 걸린단다.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사명을 거뜬히 해내는 이시몬 시몬 주임 신부는 몸도 마음도 그만큼 젊다.



오랜 역사만큼 거제본당이 배출한 성직자도 많다. 주교 1명과 신부 2명 그리고 수녀가 10명에 이른다. 거제성당 바로 옆엔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었고 주임 신부가 원장을 맡았다. 화려한 악대부의 공연도 있었던 당시의 활기를 이제는 빛바랜 사진으로만 짐작할 뿐이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에 구호 물자를 받던 거제 사람 중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고 한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자 많은 이들이 냉담자로 변했다며 사목회장은 아쉬워한다. 그런가 하면 2013년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세 분의 성인 유해를 제대 앞으로 모셨다. 성전 안에서 마음이 더욱 경건해지는 이유다. 2014년에는 호남의 사도 유향검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딸 유섬이 묘가 발견되었다. 유섬이 묘는 거제성당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포용하며 묵묵한 소임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

주임 신부는 본당의 날에 성당 넓은 마당에서 전 신자들이 모여 두 팀으로 경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며 단합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다. 또 거제성당은 신심 단체들이 화합이 잘된다고 하였다. 10여 년 전부터 루도비코회, 베드로회, 안드레아회, 요셉회에 서열이 있다고 했다. 주된 활동을 나이대에 맞추어, 연령별로 단체가 꾸려졌다. 젊은 단체는 활동적이며 힘쓰는 일을 더 하게 되었다.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다. 제대회, 성모회, 자모회, 안나회가 그렇다. 마음 맞는 이들끼리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는 일을 함께해야 했다. 자연스레 그 안에서 공동체 정신이 길러졌다. 최근에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었다. 주일학교 학생들 수도 당연히 늘었고, 성당에는 아이들 울음소리도 난다며 기뻐하는 분위기다. 타지에서 유입된 부부들도 인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등 고무된 분위기에, 무엇보다 주임 신부에게로 이끌림이 있었다고 사목회장은 말한다. 더하여 싱가포르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등 거제성당은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죽음의 신비에서 부활의 희망까지

거제성당은 입구 길이 좁아서, 장례미사 때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전에서부터 두 줄로 서서 성당 입구까지 운구행렬을 이룬다. 연령회장인 제평건 아우구스티노가 초상을 치르는 연례회의 일들을 설명했다. 최근에 망자의 시신이 기억자로 굽어 있어, 성수를 일일이 계속 뿌려가며 시신을 폈다. 마지막까지 덜 퍼진 부분이 있어 시신을 안고 30분 이상 걸려 완수했단다. 진심 그 자체의 모습이다. 연례회는 유족과 함께하며 성심으로 장례미사에 참여해 왔다. 부임 6개월인 이시몬 신부의 첫 미사도 장례미사였다. 부임 후 열 분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일곱 가정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회심한 신자가 삼사십 명 늘게 된 셈이다. 장례미사 중 분향을 비롯하여 예를 갖춘 의식 속에서, 그들이 죽음의 신비를 깨달아 돌아왔을 것이라 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부활의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제성당의 진솔한 이야기였다.



교구장 서리 동정

창원종합사회복지관, 창원아주민센터 축복식
일시: 8월 31일(목) 10:00
장소: 창원종합사회복지관

견진성사

일시: 9월 3일(주일)
장소: 경화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교구 2학기 성경공부 개강(각 본당)

일시: 8월 28일(월)

신임 소공동체장 교육

일시: 8월 30일(수) 13:30/ 장소: 교구청

제4차 본당양업22 실습 교육

일시: 8월 31일(목)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8월 31일(목) 13:30/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9월 2일(토)~3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제51차 청년성서 마르코 연수 1차

일시: 9월 3일(주일) 1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해주(요셉피나)

담당판사: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8월 28일(월)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피아)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9월 3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2023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2학기 수강생 모집

일정: 9월 4일~12월 18일, 15주간
개강일-9월 4일(월) 10:00
장소: 교구청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 2 이상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219차 ME주말 안내

일시: 9월 15일(금) 19:00~17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
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기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 지원 대학 선정
·취업률 73.7% 충족권 1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원서접수: 9월 11일(월)~15일(금)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문의: 043·270·0100~0102

2023년 성모술숯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시: 매일 둘째주 금~주일(2박 3일)
9월 8일~10일/ 10월 13일~15일/ 11월 10일~12일
장소: 성모술숯마을/ 문의: 010·3209·3955

회복의 삶 1 “더 큰 선으로의 여정” (Zoom 강의)

일시: 9월 12일(화)~11월 28일(화) 매주 화-12주
시간: 14:00, 22:00(자유롭게 참여)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회비: 7만 원(교재비 포함)
접수 및 문의: 010·8911·5957(문자 접수)

청주교구 성령대회

일시: 9월 16일(토) 09:00~17:3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김웅렬 신부, 한연홍 신부, 오웅진 신부
찬양: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4400·134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 김화석 도미니코 신부 모친 선종

김화석 신부(장승포본당 주임)의 모친
박정순(논나)님께서 8월 21일(월) 선종
하여 8월 23일(수) 여좌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말씀과 치유 대피정

일시: 9월 2일(토) 13:00~17:3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신상현(야고보) 수사
내용: 내적 상처 치유
준비물: 미사준비/ 주관: 중앙동성당
문의: 010·9664·1813, 055·547·7183

웰다잉(Well dying) 신앙 특강

일시: 9월 12일(화) 10:00
장소: 월남동성당 교육관
대상: 누구든지 참석 가능
강사: 최봉원 야고보 신부(성사전담, 前 교구 총대리)
미사주례: 유영봉 야고보 몬시뇰(성사전담)
주관: 교구 연령연합회(웰다잉교육부)
문의: 010·4581·5420, 010·2836·3829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구	8월 28일(월) 19:00	중앙동성당	은총 생활	주용민 리노 신부(교구 사무처장)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9월 3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9월
3일에 이전합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나 60g,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크림 15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11월 4일 출발 아말피&시칠리아
트레킹 순례 10박 11일-690만원
■11월 27일 출발 이스라엘&요르단
순례 10박 11일-495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에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절절 끓는 마음

고광주 에스더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7월은 며칠 빼고는 비가 연일 온다고 걱정했더랍니다. ‘뽕뽕해서 어떻게 사노? 찻잔해서 짜증 난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었지요. 저도 빨래를 하지 못하니 옷장을 뒤져 구석에 박혀있던 옷까지 꺼내어 입고 비를 견디었습니다. 어느 지방엔 홍수가 나고 폭우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디. 그 빗속에도 햇빛이 가끔 비출 때가 있어 저절로 “하느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곤 했지요.

비가 그치고 나니 새 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디. 비 그치고 나오는 별을 새 별이라고 부르더군요. 이름은 상큼하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그 새 별에 나가떨어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평상시 매일 하던 일을 하다가, 특별한 모임을 했다가, 시간을 놓칠 수 없어 발에 나갔다가... 쨍한 햇별이 사람을 그냥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디. 계속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으니까요.

한낮 온도가 30도는 그냥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날들이 계속되는 8월입니다. 불현듯 시편 97편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적들을 사르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구절입니다. 지금 읽으면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적이 되어 온 땅이 녹아내리는 상황에 같이 녹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 끓어올라 기도로 기쁨을 드려도 모자랄 이 시간에, 기도도 올리기 전부터 몸이 절절 끓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디. 이런 여름이 계속될 모양입니다. ‘연일 불볕더위, 야외 활동 금지, 외출 자제’라면 코로나 때와 같지 않나요?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꼼짝도 못했는데, 이젠 날씨가 너무 뜨거워 집에서 꼼짝 말라고 합니다. 하느님, 누가 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살아 보고자 하여 공장을 짓고, 자동차로 마구마구 달리고, 시원하여지고자 에어컨을 빵빵 틀고 있네요. 제 죄를 물랐습니디.

휴가 중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속죄의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매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한낮 더위가 사방을 달구고 있을 때 성당 마당 성모님 앞으로 갑니다. 저는 그늘진 곳을 찾아 앉습니디. 이렇게 더운 날 피약별 아래에서 서 계신 성모님 앞에 앉아 기도를 올립니다. 묵주기도 1단을 끝내는 동안 머리에서부터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벌린 입으로 땀의 짭짤함을 맛봅니다. ‘헉헉’하는 한숨도 함께입니다. 아주 잠깐 바람이 스쳐 갑니다. 어머니, 너무 시원하네요. 이 땀별에서 맛보는 시원함이라니... 제 몸은 살포시 다가오는 바람에 감탄하고 맙니다.

묵주기도를 끝내고 제 몸과 마음이 모두 하느님의 절절 끓는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 명례성지 일정 안내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명례성지에서 준비하는 행사에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순교자 성월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 사	일 시	내 용
순교자 특강	9월 7일(목) 11:00~12:30	· 11:00 미사(신석복 기념성당) ▶ 미사 중 특강(강사: 김경희 수녀, 주제: 순교자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순교자의 밤 (음악회)	9월 15일(금) 19:00~21:00	· 19:00 야외 음악회(트리오 ‘아미꼬’, 하.사.품, 마산교구 부부 중창단) · 20:00 미사(야외미사)



계약의 궤 이야기 2(1사무 4,1-7,1)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지난 순례 때 궤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궤 이야기의 결론을 다루지 못하였기에 여기서 좀 더 궤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계약의 궤를 뺏아 간 필리스티아인들을 흑사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궤를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의 궤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전쟁에 패하고 말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합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에는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계약의 궤를 빼앗긴 사건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도 하느님의 무력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구약성경의 저자들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에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이런 장소나 물건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장소와 물건을 가치있게 만드는 하느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어떤 장소나 물건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이시며,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이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또한 이런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궤는 이제 필리스티아 지방을 떠나 벳 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벳 세메스는 유다와 필리스티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유다의 남쪽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계약의 궤를 기뻐하며 맞이했던 이곳 벳 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친 후에 불경하게도 주님의 궤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궤 안쪽을 들여다보았는지 그 이유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일흔 명과 오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만 일흔 명이라 하지 않고 일흔 명과 오만 명이라고 한 것은 '오만 명'이 이후에 첨가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흔 명이 죽은 것으로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이 죄의 위중함을 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후대의 편집자가 오만 명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벳 세메스 사람들은 계약의 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키르얏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궤를 모셔 가게 하였습니다. 키르얏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때부터 계약의 궤는 키르얏 여아림에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주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가 그 궤를 지켰습니다.

이 계약의 궤는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후 예루살렘의 천막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2사무 6장 참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 놓게 될 것입니다. 계약의 궤 이야기가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 독일 학자인 로스트는 본래 궤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로, 계약의 궤가 실로 성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경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학자인 켄벨은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실로 대신 하느님의 성소로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던 궤 이야기가 현재 사무엘기의 문맥에 포함됨으로써 궤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의 건축과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파괴 및 국권의 상실은 하느님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임을 거듭하여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겼던 계약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처럼, 성전의 파괴와 국권의 상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계약 궤를 성전에 모시는 솔로몬(1626)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출처: 성경 미술관(네이버 블로그)